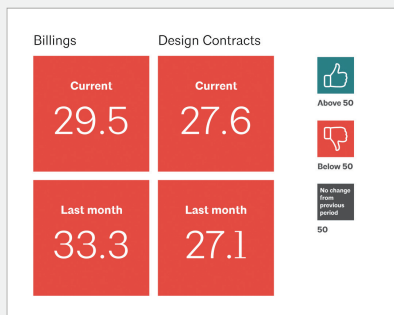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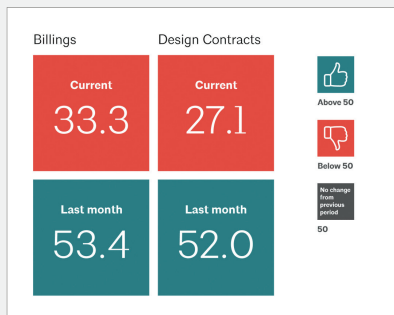


AIA, 코로나19 영향으로 미국 건축매출지수 급감 발표

<https://www.aia.org/press-releases/6288369-architecture-billings-index-points-to-majo>

<https://www.aia.org/pages/6288434-abi-march-2020-architecture-firm-billings->

<https://www.aia.org/pages/6296537-abi-april-2020-business-conditions-at-arch?editing=true>



AIA가 발표한 3월(상)과 4월(하) 건축매출지수와 설계지수

출처: AIA 홈페이지, <https://www.aia.org/press-releases/6288369-architecture-billings-index-points-to-majo>, <https://www.aia.org/pages/6296537-abi-april-2020-business-conditions-at-arch?editing=true>

미국건축가협회(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s: AIA)는 코로나 19 영향으로 미국 내 건축사사무소의 설계 서비스 수요가 기록적으로 하락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. AIA에 따르면 2020년 3월 건축매출지수(Architecture Billing Index: ABI)가 전월 대비 20.1포인트 감소하여 33.3을 기록하였으며, 4월에는 이보다 더 떨어진 29.5를 기록하였다. ABI는 비주거용 건축 활동에 대한 경제지표로 그 수치가 50 이상이면 매출 증가, 50 미만이면 감소한 것으로 본다. 2월과 3월 사이 하락 폭은 ABI를 도입한 1995년 이후 가장 큰 것으로, 2001년 경기 침체가 시작될 당시 9.4포인트, 대침체(Great Recession)에 들어설 당시 8.3포인트 감소한 것과 비교해서도 매우 큰 수치이다. 신규 설계 의뢰지수도 56.5에서 23.8로, 계약지수도 52에서 27.1로 2월과 3월 사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.

3월 중순 건축사사무소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 기업들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4월 중 매출이 15% 감소할 것이라고 추정하였다. 2020년 2분기의 회사 손실 예측치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 기업의 94%가 매출 감소를 예상하였고, 그중 25% 이상 손실을 볼 것으로 예측한 기업이 3분의 1 이상이었다. 평균적으로는 향후 3개월 동안 17%의 수익 손실을 예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

이러한 손실은 기업들로 하여금 고용 정책의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는데, 53%의 기업이 고용 동결을 시행하였고, 15%는 시행을 고려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. 32%의 기업이 직원 임금을 동결하였고, 12%는 임금을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. 나아가 응답 기업의 38%가 직원들의 임시 휴직을 고려하였고, 10%는 이를 시행하였다. 35%의 기업이 직원 규모를 줄이는 것을 고려하였고, 실제로 단행한 곳도 13%였다. 또 23%의 기업이 일부 직원을 정규직에서 임시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하였고, 실제로 진행한 곳은 8%였다.

한편 4월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'CARES Act'*에 의한 급여 보호 프로그램(Payroll Protection Program)을 신청한 기업이 전체 응답 기업의 84%이며, 신청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이 2% 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*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난 3월 의회를 통과한 미국의 3차 대응책으로, 근로자·가계·기업에 대한 지원, 코로나 대응을 위한 의료보건 시스템 운영 지원, 항공 등 심각한 위기에 처한 산업 부문에 지원 등을 담은 피해구제정책이자 경기부양정책(출처: 조용석, (2020). 美 코로나 경기부양 2700조 투입...한국도 지원 확대해야, 이데일리, 5월 23일 기사)